

第301回國會 일자리만들기特別委員會會議錄 第 7 號 (臨時會)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11年6月29日(水)

場 所 企劃財政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 범정부적 협력 촉구 결의안

審查된案件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 범정부적 협력 촉구 결의안 1

(12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종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국회(임시회) 제7차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 범정부적 협력 촉구 결의안

○위원장 이종걸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 범정부적 협력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결의안 작성에 수고하여 주신 김성식 위원님 나오셔서 일자리특위 결의안작성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성식 존경하는 선배 · 동료 위원님!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의 결의안작성소위원회 한나라당 서울 관악갑 출신 김성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소위원회에서 논의 · 의결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 범정부적 협력 촉구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우리 사회 전체가 다시 한번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모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채택하는 것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개최된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사항들과 전문가들의 조언 및 각 정부기관과 경영자 · 노동단체 등에서 제기한 일자리 창

출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여 결의안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세 차례의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의안 초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고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노총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많은 수정을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우리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 범정부적 협력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결의안은 청년일자리 육성 및 취업 지원, 취약계층 고용지원 등 여덟 가지 분야의 42개의 주제와 84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노사정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고용친화적 경제구조와 일자리를 늘리는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둘째, 정부는 서비스산업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를 정비해 나가며 경제 · 산업구조를 중소 · 중견기업 친화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셋째, 국회와 정부는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요건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적정하게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자영사업자에 대한 확대 시행을 위해 소득 과세 등 준비를 철저히 하며,

넷째, 정부는 사내 하도급이 불법파견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적극 점검하여 위법사항에 대해

서는 조치를 취하고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원청업체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지도하며,

다섯째, 정부는 임금체불의 예방과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악의적인 체불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력수사 등 제재를 강화하고 체불 발생 민원에 대해 민간조정 활성화 등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정부는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고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대책을 마련하고,

일곱째, 노사정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과 국민이 존경을 받으며 건전한 기업 활동이 정당하게 평가 받는 사회적 공감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덟째, 정부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각종 유인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율적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며,

아홉째,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구직자들의 취업난을 함께 해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열 번째, 국회와 정부 및 기업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인식을 공유하며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정부는 육아기 여성근로자들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하여 육아휴직급여 등에 대한 재정부담체계를 정비하는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강화하고 노사는 관련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하며,

열두 번째, 정부는 청년이 창직·창업 진입 단계부터 공정하게 경쟁하고 실패의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등 안전망을 강화하여 1인 창조기업·벤처기업 등의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열세 번째, 공공기관은 과도한 비정규직 채용을 억제하며 직무분석에 근거하여 기존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노력하며,

열네 번째, 정부와 국회는 규제의 합리화와 개방 및 경쟁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서비스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파견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추가 등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파견대상 업종 조정방안 등은 결의안에 이견들이 있어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결의안에 반영하지 못한 사안들은 관련 상임위원회로 송부하여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 결의안작성 소위원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의 주요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택된 결의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백재현 위원님.

○백재현 위원 경기도 광명갑 백재현 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이 결의안을 만드느라고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제가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이 소위 책자를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대안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숫자로 표기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서술적으로 풀어쓴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박재완 장관님.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백재현 위원 이것은 아무리 좋은 문구로 만들어 봐야 소용이 없어요. 얼마나 예산을 투자할 것이냐가 문제거든요, 결국은? 내년도 예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백재현 위원 이 소중한 자료 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그냥 보고서만 만든 것으로 끝을 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일자리특위에서도 1년이 넘게 고민하고 협의하고 만들어 가면서 여기에 통계나 숫자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것을 못 하는 의미를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할 겁니다. 여기에 숫자를 나열하고 싶었으면 나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소위나 우리 위원회에서 왜 숫자로 나열하지 않았는가, 그런 면까지도 읽어서……

이것을 예산으로 풀어내야 돼요. 숫자로 풀어내야 돼요. 결국은 돈으로, 그래야만 일자리특위

가 역할을 제대로 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이 심사보고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결의안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의지는 우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 많은 좋은 대안들을, 제안 내용들을 얼마만큼 국가시책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전적으로 우리 장관님 의견에, 생각에 달려 있고 그리고 집행에,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리고 국회와 예산을 심의할 때 각별히 유념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이 자료를 준 것을 숫자로 풀어서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도 항목적으로 정리해서, 우리 일자리특위가 아마 오늘까지 하는지 더 하지는 모르겠는데요. 한다면 후속서류로서 제출 할 용의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여기 항목별로 지금 여러 가지 과제가 많던데……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산안을 국회에 편성 해서 제출할 때 오늘 결의안과 관련된 사항들을……

○백재현 위원 구체적으로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제시도 하고 또 그와 관련되어서 계속 지켜보는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걸 감사합니다.

이명수 위원님.

그다음에 윤석용 위원님.

○이명수 위원 결의안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에 대개 해 왔던 내용들을 종합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결의안 만드느라고 애쓰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는데, 우선 고용부장관한테 말씀드릴게요.

결의안이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결의안은 촉구의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일자리창출사업이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미흡합니까, 많이 부진합니까? 지금까지 금년도 사업이 대체로 잘 되고 있는 건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비교적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효과는 아직 상당히 더딘 상황입니다

○이명수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보면 일자리창출사업이 부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한 것을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이 장관이 오신 뒤에 일자리창출사업의 추진체계나 이것이 개선되거나 보완된 게 있습니까? 어떤 점들이 보완되거나 개선됐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우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이명수 위원 지금 뭐가 제일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시면 그것을 감안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그것은 장관이 먼저 말씀을 하셔야지요. 저보고 달라고 하면 안 되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제가 와서 계승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부분들이……

○이명수 위원 장관이 파악하시기에 일자리창출 사업 중에 제일 부진한 부분이 어떤 내용들이나 그 말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국가의 운영이 일자리를 최우선적으로 해서 이명박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일자리정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시에 고용정책조정회의라든지 국가고용전략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른 부처를 포함한 자치단체의 역량까지 결집시켜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명수 위원 전반적으로 저희가 느끼는 것은 일자리창출사업의 총괄, 기획, 조정, 평가시스템 구축이 아직도 미진하고요. 부처는 부처, 기관은 기관별로 각각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 그런 것들이 총괄이 안 되고 그 총괄적인 평가와 그것에 대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작동되는 그런 체제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내용도 우선 서면으로 한번 자료를 주시면 다시 제가 다음에 거기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 말씀 취지가 감안되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이 결의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사업이 잘 되고 있느냐, 뭐가 문제냐, 뭐를 보완해야 되느냐 그것을 지금 제가 묻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주시고요.

이 결의안과 관련해서 제가 좀 작은 분야입니다마는 한 가지 여쭐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다문화가정에 대한 고용정책이 나옵니다. 저희 지역에도 지금 한 300명 정도의 새터민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국내에 새터민들이 얼마나 와 있는지 아세요, 북한이탈주민?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전체적으로 한 2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이명수 위원 지금 2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 약 3만 명이 다 됐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것도 한번 좀…… 제가 저희 지역의 경우에 말씀을 드리면 정말 이분들의 일자리 문제 심각하고 이분들이 지금은 가장 최저의 아주 정말 우리가 갈 수 없는 그런 일자리를 찾는 정도로까지 지금 이 사람들이 상당히 일자리 찾기에 고충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그분 특성에 맞는 별도의 일자리 창출하는 프로그램과 거기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여기 다문화가정 구성원에 대한 고용 확대 창출이 있는데 ‘다문화가족 구성원 및 새터민 고용 촉진’ 해서 새터민을 좀 언급을 해 주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전반적으로 지금 외국인 고용자가 전체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공식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실제로 일하고 있는 인력들은 한 40여만 명 정도 되고 들어와 있는 외국인력은……

○이명수 위원 앞으로 정부에서는 이 외국인 고용자에 대한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그럽니까? 정책 방향만 좀 말씀을 해 보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외국인력 정책은 기본적으로 내국인의 고용을 우선시하는 가운데 비어 있는 일자리에 대해서 외국인력들이 보충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원칙……

○이명수 위원 기본적으로 그동안 해 온다는 말씀……

그래도 지금 계속 더 늘어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지금 일자리 어려운

그런 사정들을 감안해서 다소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내국인들이 우선적으로 일자리 찾는 노력이 뒷받침된다 그러면 조금 유동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명수 위원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이게 다른전의 앞면과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정책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방향도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이명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걸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윤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용 위원 서울 강동을의 윤석용입니다.

먼저 특위의 법안 심의를 해 주신 위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장애인과 노령자에 대한 전진적인 조항이 포함되어서 상당히 다행입니다마는 좀 더 세부적으로 이런 것이 적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것은 총체적으로 산업구조 개편 또 대학교의 학제라든지 고등학교·전문학교 이런 지금 모든 구조적 문제 또 사회문화적인 어떤 문제, 의식의 문제, 이런 것이 총괄돼야 일자리가 지금 더 할 수 있고 실행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좀더 광범하고 세분화하고 또 취약계층 중에 출소자라든지 소수계층에 대한 이런 문제들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시고 또 정부에서는 실천적인 목표와 정책을 좀 짜 가지고 지금 일자리, 국회에서 제안만 하고 정부에서 실현 안 하면 안 되지만 좀 총괄적인 팀을 만들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 주기를 바랍니다.

당장 공공기관에 매일 우리가 단골메뉴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같은 것도 아직도 안 지키는 이런 마당에서는 좀더 강압적으로 정말로 지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에 대해서 조문이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이렇게 다 신설이 됐습니다마는 그 앞의 ‘취약계층 관리통계 확충’에 보면 그냥 단순히 ‘취약계층’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좀더 명확하게 적시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관한 통계’ 이렇게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종걸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광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光琳 委員 고용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에서 고액과 종택의 그 관리하시는 분들 일자리를 마련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金光琳 委員 그래서 금년에는 초기에 전달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 두세 달 쉬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디 있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페이지 46쪽의 문화 쪽에도 빠져 있는 것 같고 지역일자리에 있는가 싶어서 또 페이지 39에 찾아봐도 없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해 주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 취지를 잘 알겠고요.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이라든지 문화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金光琳 委員 그것 좀 계속 해 주시고.

이게 문화재청하고 비슷한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한 사람 좀 훈련시켜 가지고 그 사람이 두꺼비집도 고치고 전깃줄도 고치고 청소도 하고 풀도 뽑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자칫하면 좋게 하다가 고용노동부에서도 빠져버리고 문화재청에도 빠져버리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세밀하게 챙겨 가지고 조금 확대되고 내년에도 계속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끔 중앙과 지방 일자리 관계를 챙겨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강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 위원 강석호 위원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께 몇 가지 사항 여쭤 보겠습니다.

정년 연장이 각 기업에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현황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정년 부분은 조기퇴진 압력을 받고 있는 고령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좀 많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특정 연령을 당장 어떻게 늘리는 것보다도 실

질적으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계속 일할 수 있게끔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정년의 연장에서 재고용 문제도 있고 정년 자체의 연장도 있을 수 있고 또 임금피크제 부분을 합리적으로 쉽게 회사 형편에 따라서 쓸 수 있게끔 개편하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석호 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 같은 데 특수직들은 고용을 정년으로 나가버리니까 재고용을 못 하니까 정년 연장을 하고 그로 인해서 또 늘어난 임금은 임금피크제로 해서 또 줄이고 또 젊은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수급조정을 잘 맞추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 부분을 기업적으로 홍보를 많이, 그 사례를 들어 가지고 홍보를 한번 하면 좋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비정규직·정규직, 비정규직 많이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비정규직이 최근에 와서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크게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강석호 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들, 정규직원 있고 비정규직원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강석호 위원 그런데 정부가 보면 사회적 여러 여론 중에서도 비정규직을 많이 줄여라 또 사내에서도 하도급직원들 등등 해서 이렇게 경쟁력 강화로 인한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일선 자치단체에도 보면 말이에요, 인원수에 따라서 정식직원이 한 500명 정도의 인원을 가진 자치단체라면 대충 계약직들이 몇 명인지 그것 한번 산출해 보셨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것은 좀 파악해서 보고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석호 위원 아니, 저한테 보고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알아보세요. 이게 우리 정부가 잘못하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정의를, 비정규직·정규직 정의를 어디에 두는지 몰라도 계약직을 가지고 영구계약직으로 또 올려줬어요. 그러면 그분은 계약직을 하면서 공무원 무기계약직 그렇게 가는 거예요. 500명의 정규직원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가 약 180명에서 200명을 임시계약직 아니면 무기계약

직, 그것도 임시계약직에서 잘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올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의는 뭐냐, 또 일은 같은 업무의 수준을 하는데 한분은 100원을 받고 임시계약직은 60원밖에 안 받고 이런 부분이 지방공무원들에서 엄청난 불만양상을 띠고 있거든요?

이게 정부가 곁으로 국민에게 발표하는 것은 비정규직을 줄여야 된다 또 하청업자에게 원청과 똑같이 해 줘라 또 등등 해서 많은 부분을 홍보를 하는데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에서 차별을 받더라도 공직이니까, 공무원이니까 입만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용노동부장관님께서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 촉구에 한번 잘 초점을 맞춰 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위원장 이종걸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최영희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 오늘 여기 사회적 협약 내용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말이 많아 가지고 좀 허망합니다. 이것 될지 안 될지, 이렇게 좋은 말이 많으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노력한다’ ‘고려한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게 계속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 하나만 들어 보겠습니다.

김성식 위원님 발표하신 것의 열한 번째를 보면 ‘육아기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서 육아휴직급여 등에 대한 재정부담 체계를 정비하는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노사는 관련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노력한다’ 그랬는데 기재부장관님, 지금 정부가 사실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공무원들한테 시키기에는 너무나 비용부담도 많고 그러니까 민간에게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최영희 위원 그게 주로 사회서비스 직종이나 또 돌봄노동 부분이나 이런 데들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부분 가임여성들이 저임금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임여성들이 결혼도 하지 못하고 결혼을 해서 애를 가지면 바로 그 직

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체인력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연차휴가니 뭐 이런 말이 너무나 사치스럽고 또 휴가비를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들도 또 보육시설에 있는 그런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비용을 복지부에서 어린이집에다만 액수를 좀 정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게 출산휴가를 가는 것이 아니라 연차휴가 중에서 다 쓰지 못하고 한 5일 정도를 휴가를 받아서 보수교육을 받는 데 쓸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가임여성들이 애를 가질 수도 없고 결혼할 수도 없고 이런 상태이고, 그것이 곧 해직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작년에도 문제를 제기해서 일부 부처에서는 대체인력, 출산휴가를 갈 수 있는 대체인력 예산을 확보하라 그랬는데 전혀 확보가 안 됐습니다.

우선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 지원으로 월급이 나가고 있는 그런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근로자들 이 사람들에게 대체인력 비용을 책정을 내년에 반드시 하셔야지 결혼도 할 수 있고 출산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둘째 치고 출산휴가도 못 갑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수조사, 복지부한테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복지부뿐만이 아니라 각 부처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 사회서비스일자리가.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전수조사를 하셔서 출산휴가를 줄 수 있도록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저는 일자리 늘리는 데 선결요건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정부가 하는데…… 항상 근로조건 향상이나 이런 것 보면 대부분 공공기업이나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들이 먼저 가거든요. 그런데 같은 일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정부가 주는 월급 가지고 받는 사람들은 하늘과 땅 차이로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것 이것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을 하고도 예산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현실 수요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 사용자의 비율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

인데 아직도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사회서비스일자리가 지금 가장 심각합니다. 거의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제가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걸** 홍영표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위원** 저도 일자리특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특위에 들어왔습니다마는 많이 활동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오늘 이 안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일자리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제들이 다 이렇게 좀 망라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지금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사회적인 합의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꼭 한마디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경제구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임금피크제라든지 또 노동시간 단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성은 다 느끼고 있으면서도 접근을 못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들이 충돌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어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부에서 오히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어떤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좀 체계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노동시간 단축만 하더라도 실제로 또 임금의 감소를 어느 정도 그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임금피크제도 사실 청년실업자라든지 또 정년을 앞둔 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이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특히 노동계와 직접적으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면 실질적인 성과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사정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지금 기능이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못 하는데 그걸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정말 사회적인 대화와 타협을 위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것은 정부가 해야 될 큰 몫이라고 저는 생

각합니다. 그런 데에서 좀 노력을 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들이 수립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걸**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만들기특위 결의안은 소위원회의 심사 보고한 원안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보완·수정 의견을 주신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보완·수정한 부분은 보완·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결의안의 체계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해 주신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결의안 채택과 관련된 인사말씀을 간략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장님, 그리고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민생활 안정과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에 비추어 오늘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해 주신 결의안의 취지와 그 의미는 각별하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고용 사정은 다행히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32만 명의 일자리 수가 더 늘어난 데 이어서 금년 5월까지도 40만 명 이상의 고용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해 3월 특위가 출범한 이후 열파성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 만들기는 한 부문이나 특정 주체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노·사·정 등 관련 주체 간 참여와 협력이 각별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일자리 만들기라는 총론에는 모두들 적극 찬성하면서도 막상 각론에 들어가면 각자가 처한 입장에 따라 반대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의안이 개별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의 중요

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나아가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협의를 모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규제가 많고 생산성이 낙후되어서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서비스산업을 좀 더 선진화하는 데 속도를 내기 위한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이 한시라도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결의안에 빠진 사안들 그리고 이번 결의안에 담겼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추상적으로 표현된 과제들이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걸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께서 인사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오늘 국회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 촉구 결의안을 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주로 행정부에서 열심히 이렇게 하는 데 머물렀습니다만 입법부에서 이런 결의가 나오는 것 자체는 국민적 역량을 총체적으로 모으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해서 더욱 더 사안의 중대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8개 분야, 42개 부문, 84개 세부 과제에 대한 내용이 소중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소 구체적이지 않아서 애매한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변화하는 여건 속에서 살아있는 해석으로 정책화하는 데는 더 나은 측면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착실하게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서는 여기 담기지 않은 사항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의 이 결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신 취지를 잘 감안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걸 고맙습니다.

회의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2010년 2월 18일 287회(임시회) 9차 본회의에서 의결돼서 지금까지 활동해 왔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를 비롯해서 20개 정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기관의 전반적 준비 상황과 정책

적 의지를 파악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기 위해서 기업 현장 시찰 그리고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그때 직접 전달 받았습니다.

청년일자리 육성을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미래사회 주역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 방안에 대해서 재계, 노동계, 학계의 의견을 교환해서 일자리 해결을 위한 사회적 저변을 다지도록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 노력을 국가정책 쪽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수석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의원입법 발의를 지원함으로써 입법을 통해서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국회 본연의 임무도 수행했습니다.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다시 한번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위원회 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 기업, 노동계 등 사회 각계의 관심은 물론 여야 위원님들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일자리 창출의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님 그리고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님께서는 국회에서 총의를 모아 채택한 결의의 내용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올립니다.

다시 한번 지난 1년 5개월 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올립니다. 일자리만들기 특위 활동에 참여해 주신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는 임기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활동이 종료는 됩니다마는 향후 일자리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되어서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회의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강석호	김광립	김성식	김재균
백재현	성윤환	안효대	윤석용
이명수	이종걸	최영희	홍영표

○청가 위원(1인)

박 준 선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국	경	복
전 문 위 원	김	광	묵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이	채	필
기 획 재 정 부 장 관	박	재	완